

특허정보 컨퍼런스 10월 30-31일 COEX 개최

특허청은 10월 30-31일 COEX 그랜드볼룸에서 세계 선진기업의 특허전략과 특허정보기업의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<2007 국제특허정보 컨퍼런스(PATINEX 2007)>를 개최한다고 10월29일 발표했다.

국제 특허정보 컨퍼런스는 특허청이 기업과 연구소의 특허경쟁력 및 특허정보 활용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적인 특허정보 행사로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, 기업의 R&D 활동을 위한 특허전략에 초점을 맞춰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실무경험이 녹아있는 특허정보 활용사례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을 예정이다.

10월30일에는 LG전자 이정환 부사장이 특허경영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특허가치 평가기업인 Ocean Tomo의 Steve Lee가 <타겟 기술분야의 기업 및 기술분석을 위한 방법론>을 주제로 기술개발시 개발비용 및 위험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, 10월31일에는 삼성전자, IBM, HP 등 국내외 기업들의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허정보 활용전략이 소개된다.

한편, 컨퍼런스와 함께 운영되는 전시회에서는 국제지식재산권기구(WIPO), Thomson Scientific, 한국특허정보원, 웹스 등 국내외 특허정보기관이 전시부스를 설치해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특허정보 분석 소프트웨어 및 특허정보 서비스를 실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<김 은 기자>

<화학저널 2007/10/29>